

제 84 호

연중제 14 주일

복자 김신부 의부행사

1974. 7. 7.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함승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강론】



대건정신(大建精神)

이대권신부

7월5일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 우리 한국 사제의 주보(主保)이신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신부님 축일입니다. 여기서 김대건 신부님의 역사나 업적을 찬양하고 그 공적을 기록하자는 것이 아니고, 김신부님의 정신과 일을 되찾아 우리 조국과 영원한 그리스도 왕국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물(唯物)이나, 유신(有神)이나, 무방향(無方向)이나는 이러저러한 갑론을박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너」와 「나」의 영원한 기로에 헤매이는 인생항로의 중차대한 문제임을 각성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아들어야 하겠습니.

한국인 사제의 계보를 더듬어 올라가면 맨 첫머리에 순교자 김대건 신부님이 있으니 그는 신앙과 활동력으로 일생을 보냈고, 그의 죽음은 또한 광휘이고 장렬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름그대로 크게 세우는(大建)정신활동가였습니다. 교형자매 및 우리 성직자들은 오늘 이 즐거운 축일을 맞아 무엇보다도 「크게 이르키는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다양성(多樣性) 안에 일치, 일치안에 나와 너의 영원한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유훈을 묵소리로 외치는 새남터의 외침을 상기합시다. 「나의 최후의 시각이 당도하였으니 여러분은 나의 말을 잘들으시오. 내가 외국사람과 교제한 것은, 오직 우리 「교(敎)」를 위하고 우리 「천주」를 위하여 있었으며, 이제 죽는 것도 천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바야흐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복을 얻으려거든 천주교를 믿으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알아 공경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한국 79위 순교복자전 P. 277)

친애하올 교형자매 여러분!

하느님과 교회 즉, 그리스도 왕국을 크게 세우고자 하는 김신부님의 외침에 우리도 대건(大建)해야 할 그 많고 많은 오늘의 문제들을 가슴깊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예리한 신앙의 해부도를 「나」의 가슴에, 「너」의 가슴에, 하느님과 교회안에 넣어 봅시다.

양심과 행동의 바로미터가 「정(正)」, 「반(反)」 어느 방향을 가르칩니까?

오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니까? 그러나 「크게 세우는 마음」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김안드레아 신부님의 정신을 본받는다면... 우리 모두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옛것에 우리 천주 교구에는 「대건정신」의 삼총사, 새로운 사제 3명이 주의 일꾼으로 나왔습니다. 연이어 청간수 샘물이 솟아올라 나오듯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풍년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친애하올 교형자매들이시여,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이제 우리들은 큰 마음, 큰 계획, 큰 실천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열을 빛나게 합시다. 알렐루야!

<중앙성당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당신의 성전에서 하느님이여, 당신의 자비를 다시 생각하나다. 당신의 이름처럼, 하느님이여, 당신의 찬송이 땅끝까지 미치고, 당신의 오른 손은 정의가 가득하오이다.

(2)말씀의 전례

□**제1독서**(이사 66; 10-14, 경향잡지 7월호 P. 68)
보라 나는 너에게 평화를 강물처럼 보내리라.

□**충계송** ◎은 땅은 춤추며 하느님을 기리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으라. 주께서 내게 하신 큰 일들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 하느님 찬미를 받으옵소서. ◎

□**제2독서**(갈라디아 6; 14-18, 성서 P. 436)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치는 생명으로 너희 안에 살리라. 알렐루야.

□**복음**(루카 10; 1-12, 17-20, 성서 P. 154)
너희 평화가 그 위에 머물리라.

□신자들의 기도

1. 우리에게 많은 순교 복자를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순교 복자 김대건 신부님을 하루 빨리 성인품에 올려주소서. ◎주여...

2. 주여, 우리로 하여금 순교자의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

3. 대사제이신 주여, 새로 난 사제들을 위하여 비오니 그들에게 충명한 판별력과 결단, 그리고 건강을 주소서. ◎

+ 주여, 지금 우리 교회는 당신이 주신 첫 순교 사제 복자 김대건 신부님의 정신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아시고 들어주시는 주여, 우리의 구함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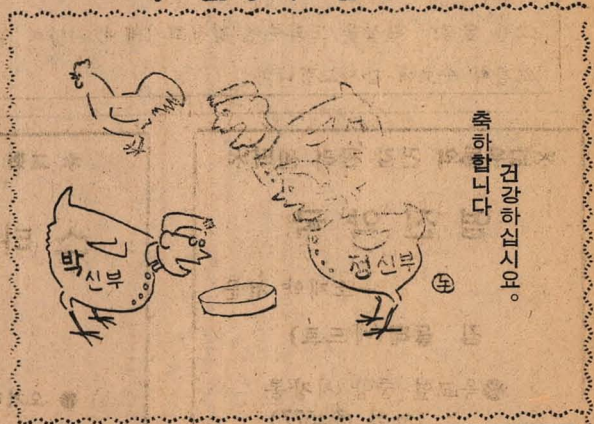
(3)성찬의 전례

□**성찬식**. □**봉헌**

□**영성체송** 어려운 일을 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내 너희에게 편히 쉬게 하리라.

(4)폐회식

* 숲정이 산책 *



※편집자 주※

공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곳 교우들을 기억해 본 적이 있는가?
 똑같은 천주교 신자들이면서도 공소에 산다는 이유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내 고향이 남의 열병보다 더 중한지라 우리들은 자기의 무엇이 아니면 쉽게 넘겨버리기가 쉽다. 그러나 여기 소개하는 인월공소 이상태 회장님의 호소를 읽음으로 그냥 흘려 버리기에는 마음이 개운치 않다. 한 포도나무를 이루는 형제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풍토가 아쉬운 우리의 실정이고 보면 무언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할 것 같다. 갈려나간 형제들은 매년 시골에 교회로 지어주는 교회가 몇이 된다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하고 허둥대는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서는 성서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신다. (참조 마태오 복음 25 : 31-46)

□긴급동의□

삼가 호소합니다

이상태(아력수)

+ 찬미 예수

존경하을 교형제위께 공소 돌기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벽지 공소 회장은 일선 지구에서 15년이란 세월 동안 교우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동안 겪어온 경험과 애로가 많았던 점, 시정되어야 할 점, 등등에 대해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개탄하는 말을 가끔 듣는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도시 교회와 벽지 공소의 격차일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탄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본당 교우님들께서는 신부님들을 모시고, 수녀님, 전교회장님을 모시고, 성체 성사 안에 계시는 오주 예수님을 매일 모시면서 어렵지 않게 영적 신락(靈的神樂)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은 공소 교우들로서는 더 없이 부럽습니다.

공소 교우들은 춘추 판공 두 차례 간신히 성체 성사를 모실 수 밖에 다른 별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성총 지위에 살려면 특별히 기도과 성사일전대, 성직자 귀한 공소 교우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서러움이 북바쳐 오릅니다.

자신들이 신령성체(神領聖體)라도 하겠지만, 신임 교우들이 신령성체를 알리 없고 비록 살아 있으나 죽어가는 영혼들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병으로서 악마와 대결해서 싸우는 군대라면, 최일선 전방 고지에서 운명을 직전에 두고 적과 대치하고 싸우는 공소 교우들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도시 융성한 교회나 벽지 교회나 하느님의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지체임은 두 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렇게만 지내야 합니까?

● 건의 사항

1. 천재지변이 있을때 정부에서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즉시 대책장구를 함은 정부로서 의당히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구를 초월해서 범 교구적으로 어떠한 원조기구를 설치해서 약한 본당돌기, 약한 공소돌기운동을 전개하여 인력 지원이나 물적 지원을 해야합니다. 의타심을 기른다는 말이 될지 모르나 남의 힘을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금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가진바 모든 재산은 천주님께로부터 임시 위탁받은 선물이라 생각할때 천주님 앞에 과히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프로테스탄 교파에서는 일개 면 소재지까지 목사가 주재하고 전교하는데 반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2백명, 3백명되는 공소에도, 장차 본당이 될 수도 있는 공소에도 전교회장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농촌과 도시 격차입니다. 전교회장을 보내주도록 노력합니다.

2.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이니, 세미나니, 무슨 강습이 있어 열새없이 모든이의 마음을 진흥시키는데, 우리 공소에서는 피정도 없습니다. 신자 재교육이 필요한 요즘 어찌 되는 셈인지... 필자 자신도 피정이란 말을 선배 회장님으로부터 들었을 뿐입니다.

교육이 없기에 활동이 없고 활동이 없기에 교회발전이 없음은 뻔한 일입니다. 범 교구적으로 적어도 일년에 한번 정도는 교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 주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530-15) 남원군 동면 인월공소 회장

●알림●

그간 순정이 편집을 도와주던 김선희 (베레사)양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순정이를 떠났습니다.

그간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974. 6. 30

순정이 편집실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동 (전화 ④4577)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⑥ 6094)

☆ 추억의 집 ☆

푸른 사진관

이준영(모세)

○전동, 성모병원 건너편

전화 ③ 6059

□양지쪽□



전 화

한 상갑(바오로)

전화는 분명히 현대 문명의 이기이다.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통화가 된다. 심지어 이데올로기의 대립관계에 있는 워싱턴과 모스크바에 직통 전화가 개설 되더니 이제는 서울과 평양도 이어졌다. 여러날을 걸려 인편에 전달되던 소식들이 필요한 때에 아주 빠르게 육성으로 전해지니, 이 전화는 집집마다 한 대씩 있어야 하겠다.

요사이 전구에 새로이 전화가 가설되게 되어 시내가 온통 난리(?) 속이다. 언제부터인가 전화는 생활 필수품의 영역에서 재산 목록의 그것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인간증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약금을 불입하는 첫날부터 난리가 터졌다. 선착순이라는 이 기발한 조건때문에 비상이 걸린 집이 많았다. 기실 ①국 관내는 내일부터, ②국은 10일부터가 문제인데도 선착순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청약금을 불입하는 날 새벽 4시부터 집집마다 비상이 걸리고, 장사진이 늘어 서고, 옥신각신 시비가 불꽃을 튀겼다. 3일 새벽에 있었다는 일들을 들으면 서글프기조차 하다. 왜 이래야 하는가? (*다행히 늦게나마 추첨제로 방법이 바뀌었음)

전화가 꼭 필요한 가정에 배정되기를 빈다. 모두들 필요해서 청약하겠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 더욱 그렇다.

그런데 전화는 교장이 나면 별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통화할 수 없는 전화는 전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들 천주교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를 한대씩 가지고 있다. 기도를 통해서 통화가 되는 전화를 말이다. 그 전화가 제대로 통화가 되는지 모르겠다. 활발히 통화가 되는지 모르겠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전화가 아닌지 모르겠다. 전화 과동을 겪는 차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전화 회로를 검사해보자.

(전화가 없으니 평강히 담담하다. 개인에 관한 일도 그렇고, 학교일도 그렇고, 교회일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전화를 청약하고 보니 그런 난리 속이라, 전화청약에서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읽어 보고픈 생각이다. 비능률적으로 힘들게 뛰어야 할지 아니면 좀 쉬어야 할지를 말이다. 그러면서도 맨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미 가설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전화 회선의 상태가 걱정스러워 진다.)

자신의 전화 회로 검사와 아울러 아직도 하나님과의 전화가 가설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새 전화의 가설을 위한 청약에 힘쓰자.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교사)

요십이 (51) 김병오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판장 신부 범 석규, 전화 ③3498)

- 매주 일요일 오후3시...이삭회 (성경, 성가, 건전포크송)
-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매주 월~목 7시...영어교실
- “ 목요일 8시...“목요일 밤에” (남 여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이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타와 J.O.C.)
-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몇배 더 잘 살
수 있다.

✽성 바오로 서원
T.2~7398

이주간의 성경

- | | |
|---|--|
| 7. 8<월> 독서(오세 2:14-16, 19-20)
복음(마태오 9:18-26, 성서 P.19) | 11<목> 성 베네딕토 아파스 기념
독서(잡언 2:1-9)
복음(마태오 19:27-29, 성서 P.46) |
| 9<화> 독서(오세 8:4-7, 11-13)
복음(마태오 9:32-38, 성서 P.20) | 12<금> 독서(오세 14:2-10)
복음(마태오 10:16-23, 성서 P.21) |
| 10<수> 독서(오세 10:1-3, 7-8, 12)
복음(마태오 10:1-7, 성서 P.20) | 13<토> 독서(이사 6:1-8)
복음(마태오 10:24-33, 성 P.22) |

☆집필도장청부 ✽ 고급실크빅☆

대동 페인트 상사 대동 지업사

●동문 비거리 (중남동 1가 17)
전화 ③5986
임 도민고(정원)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잡살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이미 제과소
상업은행 옆(③6589)
이미 예식장
남문 옆(③3915)
김민주(가타리나)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임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③ 6691 교원 85 번)



1. 부제 인사 발령

본 교구 교구장이신 김 재덕 주교님은 사제 서품을 앞둔 부제님들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실습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당으로 파견하셨다.

범 선배 부제-중앙 본당으로, 박중신 부제-전동, 김 기수 부제-합열, 한 봉섭 부제-수류, 강 인찬 부제-무주, 김 동준 부제-서학동, 이 태주 부제-금산

2. 중·고등 학생회 프로그램 연구회 (오늘 오후 2시, 해성학교)

여름 방학을 앞두고 갖는 이 모임에 각 본당 학생회 지도자는 물론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바람.

3. 성년 행사 (12일<금>: 중앙성당, 주례...오기순 신부님)

① 오후 7시반...특별 고백성사, ②8시...미사와 강론, 많은 참석 바람.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②3874 보좌 신부 서 석 구
사도 회장 이 복 석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박중근 신부님 첫미사 및 서품 축하식
 - ① 오늘 공식 미사 (첫미사)
 - ② 박신부님을 위한 기도회 성원 부탁드립니다.
3. 첫 영성체 교리 (다음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4. 꾸리아 월례회 (다음 주일 오후 2시)
5. 본당 유지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교부금 완납하여 본당 운영에 협조합니다.
6. 타 본당 구역 신자는 속히 교적을 옮기시다.
□지난 주일 봉헌금 39,337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임원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우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3. 서품자에게 보내 주신 예물, 감사합니다.
교형 자매들께서 모아 주신 예물 (60,750원 상당)을 지난 3일에 서품된 27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주 성미 1말 1되, 누계 주일 봉헌금 13,500원, 교황주일 헌금 4,726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2. 자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3. 성경 연구 동지회 (오후 3시, 신학생 지도) 회원들은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교리 교사 회합 (토요일 오후 5시)
5. 김동준 부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학동안 이리출신 김 부제님이 실습나오셨습니다.
□주일 봉헌금 11,288원, 교황주일 헌금 5,7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할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2. 미납된 교부금은 속히 납부합니다.
4. 박태수씨 고압 분무기 1대 기증
오성 주장 옆에서 전북 농약사를 경영하시는 박태수 씨에게 본당 교우들과 본당 신부님께서 감사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5. 신축 성금, 감사합니다.
노선옥(마리아)...14처 상 약속금 15만원 무명씨...3백원
□지난주 신축 기금 300원, 누계 1,457,497원
지난주 신축 성미 2말, 누계 185말
주일 봉헌금 15,550원, 교황 주일 헌금 3,20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정 승 현
사도 회장 송 재 진

1. 정 신부님, 범 부제님 축하식 (오늘 공식 미사후)
 2. 주일학교 1일 교장 (이충근 구역장님)
 3. 유아세례 (오늘 공식 미사후)
 4. 첫 영성체반 아동 모집 (15일<월>부터, 오후 5시)
 5. 정 신부님, 범 부제님 환영 다과회 (13일<토>, 녀미사후)
성가대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주최:성가대)
 6. 미납된 교부금을 속히 납부합니다. (재경부)
 7.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임원과 구역장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8.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반 중·고등학생 미사
 9. 신용 조합 월례회 (다음주일 저녁 미사후)
 - ① 월례회 참석시 100원이상 출자하시면 추천권 2매와 세탁비누 1장을 받으십니다.
 - ② 6월분 추천권을 찾아가세요.
 - ③ 임원회 (9일밤 8시반)
- 주일 봉헌금 43,310원, 교황주일 헌금 9,735원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 중 근
사도 회장 김 중 함

1. 김중택 부주교님 환송식 (오늘 공식 미사후)
그간 어려운 환경속에서 본당을 육성 발전시키신 부주교님께서 교구의 큰일을 하시기 위해 본당을 떠나 교구청으로 가셨습니다. 부주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신용조합 임원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3. 교부금은 7월중에 완납합니다.
4. 주일 봉헌금은 정성껏 준비합니다.
5. 애령회 기금 조성이 부진합니다.
※ 애령회 성미 1말 4되 1흡, 헌금 200원
□주일 봉헌금 7,700원, 교황주일 헌금 3,085원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仔犬분양 (임한전 애견)
문의처: 전화 ②7692(진북동 어은골)

선물용 케익과 빵, 파자, 찹쌀떡 준비!

프 랑 스 제과
.....
입 금 님 찾 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찾 집 ⑤5013
김 원 준(야교버)

◎ 닭·염소·야생동물 일체 ◎

화 랑 상 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안당)
남부시장 닭전
전화 ② 6C91(교환) 108